

◆ 출제문제

- 인문계열 : 정오반

[문항 1] 다음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의 구체적 경험 또는 사회적 현상을 들어 논술하시오.

<제시문 1>

‘피로 사회 비판’, ‘느린 삶’, ‘휴식 속의 행복’이 요즘 출판의 키워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대반격이 강력하다. 뇌과학, 진화인류학, 행동경제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목하 맹활약 중인 행복전도사들을 상대로 글을 풀어간다. 이른바 ‘에텐주의’를 비난한다. “뜯구름 잡거나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선블리 위안하려 들지 마라.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에텐주의자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다. ‘미친 무한경쟁을 중단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들은 현대인을 ‘쾌락의 러닝머신’ 위에서 끝없이 질주하는 신세라 동정하고, 경쟁이 야말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암적 존재라 질타한다. 경쟁을 동력 삼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는 인류의 새로운 원죄로 내몰린다. 하지만 다 낭만적인 허구다. 인류학 연구 성과를 보면 야생은 비참했고 인류는 인정사정없는 지상의 삶과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분투해야 했다. 자연의 출발점은 가난이었고 경쟁은 삶의 숙명이자 조건이었다. 에텐주의자들은 경쟁이 불평등을 낳았다고 하지만 경쟁시대 이후에야 생필품 값은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 평균수명은 지난 15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오히려 팽팽한 경쟁과 긴장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뇌를 보면 분명하다. 사랑, 새로운 지식, 부와 지위, 무엇이든 맹렬히 추구할 때 도파민(쾌락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인간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를 성취하려 한다. 아이들을 공중에 띄워보라. 처음엔 떨어다가도 짜릿함에 웃는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들도 쉴 새 없이 모험에 나선다. 보행기에도 가짜 운전대를 달아주는 이유이다.

새 일에 대한 야심이 없으면 뇌세포도 시들해진다. 중년 이후 남성들의 일과 인지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했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미국과 덴마크의 남성들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남성들보다 인지능력이 높았다.

세상에 경쟁 없는 체제는 없다. 소련 공산체제에서도 시민들은 식권과 아파트를 두고 경쟁했다. 문화혁명 때도 암투가 난무했다. 불평등이나 위계는 경쟁체제 이전부터 있었다. 오히려 공개경쟁이 낳는 위계가 정직하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일시적이다. 승패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그 결과, 누구나 더 나은 것을 꿈꾼다.

행복전도사들이 혐오하는 경쟁스트레스도 인생에서 ‘맛소금’ 같은 것이다. 우리는 놀이조차 경쟁을 즐긴다. 물과 승패가 분명한 스포츠에 열광한다. 팀워크나 동지애도 경쟁의 상황에서 나온다. 앨범 판매 수익만도 넉넉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담스러운 라이브 공연을 계속한 것도 무대 위 긴장이 주는 행복 때문이었다. 존스홉킨스대 연구 결과,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임산부가 낳은 아기가 발육상태도 좋고 인지검사 점수도 높았다.

<제시문 2>

<그리스 비극>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충격적인 이야기일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관습적인 의미의 성공은 행복보다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 신경증 환자들은 수천, 수만 명인 반면, 행복한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개인적인 욕심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는 말자. 행복은 욕심을 갖고 자신을 좇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듯하다. 성공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식으로든 맹렬히 좇을수록 행복은 오히려 비껴가는 듯 보인다.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도, 계속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행복이 될 때, 행복은 언제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하다. 에릭 호퍼는 “행복의 추구는 불행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라고 말했으며, 이디스 워튼도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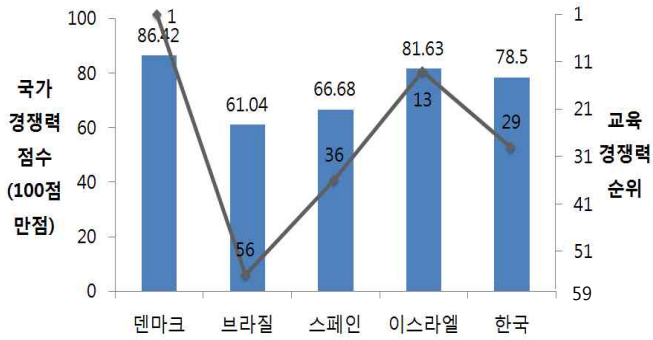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보자. 지금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믿음에서 불행이 생겨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루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대신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나은 것들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임무이다. 놀랍게도 행복한 삶은 불행이 없는 삶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불행은 삶 속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온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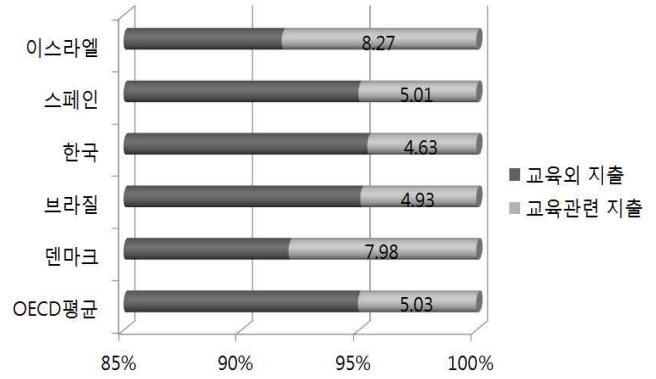
행복이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될 때는 현재의 불행에서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머지않아 행복은 당신을 기억해 내고 슬그머니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삶의 흐름에 좀 더 순응하려고 노력해 보자. 무엇을 이루겠다고 번번이 애쓰지 말고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 두자.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말을 타기가 훨씬 수월한 법이다. 달리 말하면, 행복을 찾아 헤매는 대신 스스로 행복의 원천이 되어보자는 뜻이다. 바로 이곳에 행복이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말이다.

[문항 2]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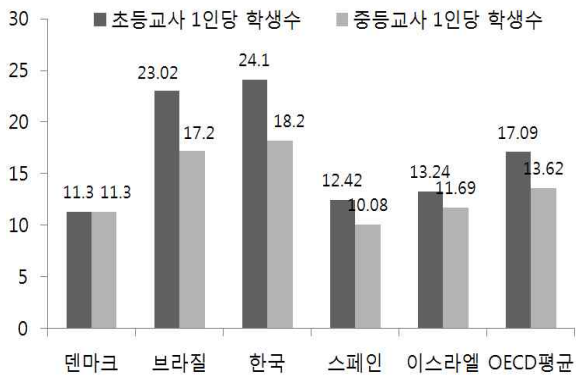
<그림 1> 2011년 국가별 경쟁력 점수 및 교육경쟁력 순위 (59개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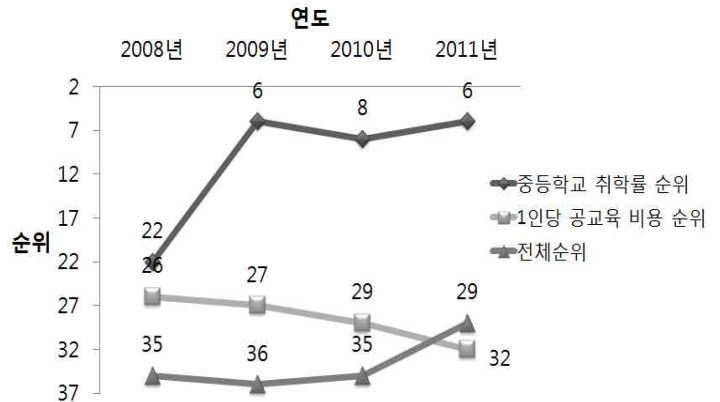
<그림 2> 2011년 국가별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그림3> 2011년 국가별 초등/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명)



<그림4> OECD국가 중 한국의 교육 분야 세부지표별 순위변화



<표1> 2011년 국가별 세부지표 점수

	학업성취도(수학)*	학업성취도(과학)*	영어숙달도**	고등교육 이수율(%)***
덴마크	503	499	99	43
브라질	386	405	85	11
한국	546	538	81	58
스페인	483	488	87	39
이스라엘	483	489	89	20
OECD평균	500	500	87	33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수학과 과학점수임

** 토폴(TOEFL) 성적임(총점 120점)

*** 고등교육은 대학수준의 교육을 말함

◆ 출제문제 해설

II. 인문계열(정오)

1. <제시형 문제>: ‘행복 추구’에 대한 관점

1) 출제 의도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제시문 1과 2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행복 추구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각 제시문에 드러난 입장을 명료히 파악한 후, 삶의 현장에 비추어 사례를 고찰하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행복 추구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 제시문 설명

제시문 1은 <러쉬!>(토드 부크홀츠 저, 장석훈 역, 2012, 청림출판)을 기초로 조선일보 2012년 4월 14일자에 보도된 자료(제목: ‘에덴은 어디에도 없다... 태초부터 경쟁이 있었을 뿐’)를 기본으로 하여 출제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이다.

제시문 2는 <우리가 잇고 사는 50가지>(E. 젤린스키 저, 홍연미 역, 2012, 청아출판) 가운데 발췌, 수정된 내용이다(제목: 조금만 늦추면 행복이 따라온다).

3) 평가기준

● 평가요소 1: 각 제시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평가의 초점: 내용 이해력 및 핵심 분석능력
- 평가 세부기준: 해당 글의 핵심적 주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요소 2: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구체적 경험 또는 사회적 현상을 제시하며 논의하였는지 확인한다.

• 평가의 초점:

- ① 특정 입장에 알맞은 적용 사례를 찾아 기술하는 능력
- ② 구체적 사례 및 현상을 적절한 용어를 통해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 ③ ‘행복 추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

• 평가 세부기준:

- ① 해당 입장에 알맞은 구체적 사례 또는 사회적 현상을 제시해야 한다.
- ② 구체적 사례 또는 사회적 현상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시켜 기술해야 한다.

2. <도표형 문제> : 교육경쟁력 제고

1) 출제의도

- (1)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 제시된 도표유형과 개념들(국가경쟁력, GDP 대비 공공지출,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을 토대로 하고 단원활동의 질문 유형을 반영함으로써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 (2) 우리 사회의 현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제시된 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생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도표 설명

인용: 한국교육개발원(2011).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 교육 시리즈 8-교육경쟁력. 한국교육개발원. 일부 수정 및 편집하여 사용함.

<그림1>2011년 국가별 경쟁력 점수 및 교육경쟁력 순위: <그림2>, <그림3>, <그림4>, <표1>의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임.

<그림2>2011년 국가별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약점임.

<그림3>2011년 국가별 초등/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명) : 초등/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약점임.

<그림4>OECD국가 중 한국의 교육 분야 세부지표별 순위변화: 1인당 공교육 비용은 약점임(감소추세). 중등학교 취학률은 강점임(증가추세).

<표1>2011년 국가별 세부지표 점수 : 고등교육이수율과 학업성취도(수학과 과학)는 강점임. 영어숙달도는 약점임.

3) 평가기준

● 평가요소1: 우리나라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의 초점: 도표분석력 및 논리적 추론력
- 평가 세부기준:
 - ① 강점과 약점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강점 3가지와 약점 4가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강점 또는 약점 판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요소2: 우리나라의 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평가의 초점: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창의적으로 고안해 내는 능력
- 평가 세부기준
 - ① 방안을 3가지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방안은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의 약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③ 방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지출을 늘린다.’ 식의 포괄적인 답은 감점함)